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2015년 신년사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새해 벽두에 주변을 보면 온통 우울한 뉴스입니다. 신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 되고 있고, 청년 실업은 여전하고, 정치적으로도 갈등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을미년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울한 해입니다. 일본제국은 조선침략에 대한 최고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명성황후를 암살했는데, 120년 전 구한말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듯이 지금의 한국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의 죄판을 엮는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김재환 감독의 <퀴바다스>는 물욕에 빠져 대기업이 되어버린 대형교회와 비리를 저지른 목회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된 교회의 양적 팽창, 교회세습, 불륜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 등을 오늘날 기독교 추락의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락한 삶과 자녀를 희생시켜가면서 대를 이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함께 비난을 받는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다큐 영화 <제자 옥한흠>은 존경받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목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참 목자가 많이 나오고, 그들의 인품이 교인들에게 흘러넘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기독교로 회복되기 위해 한국에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울림이 많습니다.

지난 25년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내부에서 교회문제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교회에 관련된 운동은 “교회개혁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 등에 맡기고, 본지는 직접적으로 교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기독교세계관의 확산’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기독교의 추락을 막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새해 본지의 기본 방향을 “한국교회에 들어온 비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며 이러한 세계관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여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하였는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아 칼럼들을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회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교회에 들어온 성공제일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영적 실용주의, 신비주의, 반지성주의, 성직주의와 사제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의 원천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많은 문제점들이 대형교회 문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의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은 “처음에 교회는 교제모임이었고,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박득훈 목사는 첨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다가 세습, 부동산 매입, 권력집중 등 온갖 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빈곤에서 유래된다고 봅니다. 구원파적 복음의 왜곡, 율법주의, 상급신학의 강조, 미신적 영성, 미신적 선교, 상업적 성령운동, 예수 없는 성령운동, 세대주의적 종말론, 우중화 목회, 선한 도구로서의 이성과 지성에 대한 오해, 영광의 신학, 신사도운동,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한 예배, 목재적 교회 정치 등 이 모든 병폐들은 신학의 빈곤으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지는 2015년 한 해의 편집 방향을 세상에서 교회로 눈을 돌려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기독교세계관을 가려내고, 건전한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초석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많이 읽혔고,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의와 빈부격차 해소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계에서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 또는 사단이라고 비난을 받으며 교회에서 쫓겨나와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거꾸로 읽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이름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었지만, 이제는 ‘새로운’이라는 이름의 교회에 성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타파하는 일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필진으로 동참해 주시고, 널리 보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한국인은 한복을 입지 않는다. 한복은 명절에만 입는 사치품이 되었다. 현대인에게 종교는 마치 한국인에게 한복처럼 되고 말았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는 경제, 정치, 기술, 학문이 자리 잡고 있고 스포츠, 예술, 연예 등은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때 삶의 중심부에 있었던 종교는 주변으로 밀려나와 사적인 공간에서 쉬는 시간이나 관심을 쓰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기독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 사고가 중요해진 현대 문화의 발전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현대과학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현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을 끌어올린 사다리다리를 밀어버렸다. 기독교의 권위는 떨어졌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언권을 상실했다. 탈종교화가 문화발전의 척도로 인식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런 쇠락은 결코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 교회와 신학이 좀 더 심각하고 철저하게 문화의 변화와 씨름했다면 오늘날의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공영역을 주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요즘 과학적 사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조롱을 받고 있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현대문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최근의 과학기술은 생산성 향상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기독교 신학은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어야 했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유주의 신학은 너무 빨리 과학적 사고에 아첨해버렸고 보수신학은 너무 강하게 과학적 사고와 담을 쌓고 말았다. 과학적 사고의 특징과 약점을 성경적 입장에서 철저히 파헤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결국 정치, 경제, 기술, 학문 등이 공공영역을 주도하고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은 거기서 무의미하게(irrelevant) 되고 말았다. 삶의 주변으로 물러난 기독교는 오직 영혼의 구원과 개인적 경건에만 몰두할 뿐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사람들이 관심과 시간 대부분을 쏟아 붓는 공공영역은 내팽개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사적인 공간과 휴식 시간만 지배할 뿐 광대한 공적 공간과 시간에는 무력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이런 이원론 때문에 기도와 전도에 열정을 쏟는 신자조차도 정치계나 기업계에 들어가면 불신자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사적 공간에 칩거하게 되자 기독교는 편협한 집단 이익과 자체의 정체성 유지에만 급급할 뿐 공적 이익에는 무관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경고보다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보수교회는 후자는 무시하고 전자에만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공공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이념들의 상당수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했는데도 기독교계는 이들의 정신적 특허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 노예해방, 여성과 어린이 권리 보호, 가난한 자와 장애인 복지 등은 모두 성경이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들인데 전 세계 모든 공공영역이 추구하는 이념들이다. 철학자 하버마스(J. Habermas), 매킨타이어(A. MacIntyre), 심지어 무슬림 지도자조차도 기본인권 사상은 기독교의 유산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기독교는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원론은 특히 한국 교회에 두드러진다.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사회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적 공간에 피신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독립운동, 개화활동, 신교육과 현대 의료 도입 등에서 앞장섬으로 기독교는 공적 공간으로 진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게 할 만한 공공신학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미국에서 개발된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로 잘못 인식되어 기독교인은 정치를 비롯한 공공 영역 활동을 삼가는 전통이 굳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독교는 공적 영역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권신장, 환경보존, 사회정의 등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활동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사회에 이익이 되며, 교회의 위상과 도덕적 권위를 높여서 복음 전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세속 문화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려는 소극적인 노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Contents

WORLDVIEW · JANUARY · 2015



COVER STORY

08 커버스토리 영화를 영화답게_캐서린 바르소티(Catherine Barsotti)

SPECIAL

18 기획칼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창조적 영성_신국원

28 기획칼럼 한국 기독교의 두 얼굴_강영안

34 기획칼럼 공적 신학과 그리스도인_신동식

COLUMN

02 발행인 신년사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_김승욱

04 대표주간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_손봉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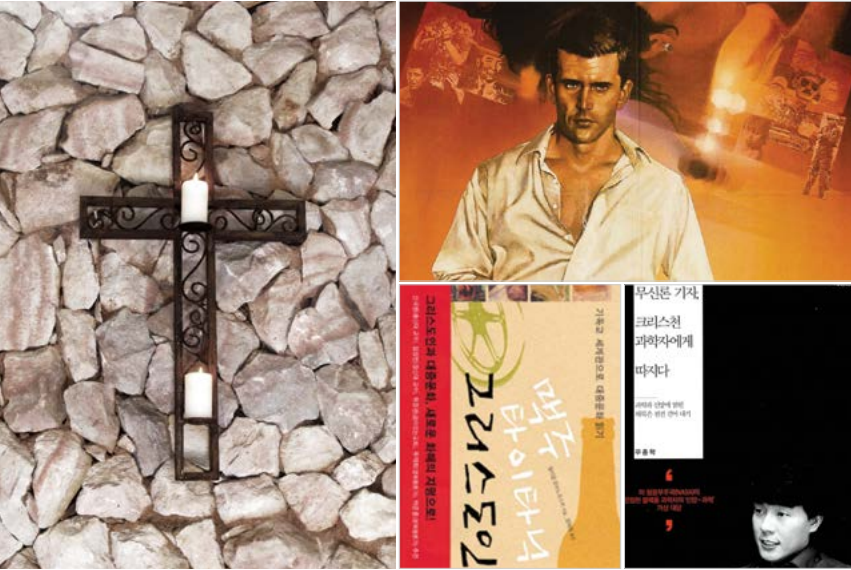
40 메디컬칼럼 Cure & Care 하나님만이 돌보아 주시던 시간_최현일

44 청년연단 청춘 배틀, 넉넉히 이기는 방법_석지원

CULTURE

58 유머 육감_손봉호

59 편집# 밥 한번 먹자



표지인물
캐서린 바르스티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BOOK REVIEW

48 서평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_문준호

NEWS

56 사무국 뉴스

57 월담 1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 | |
|-------|---|
| 대표주관 | 손봉호 |
| 발행인 | 김승욱 |
| 편집인 | 신효영 |
| 편집위원 |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
| 자문위원 |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
| 교정/교열 | 김선경 |
| 사진 | 신효영 |
| 편집 | 김소라 |
| 디자인 | 황정희 |
| 제작 |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 인쇄 | 완산정판사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 | |
|--------|---|
| 전화 | 02-754-8004 |
| 팩스 | 0303-0272-4967 |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
| 홈페이지 | www.worldview.or.kr |
| 페이스북 | facebook.com/cworldview |
| 블로그 | http://cworldview.blog.me |
| 모바일매거진 | m.worldview.or.kr |



교회 사역에서 영화를 어떻게 볼까?
캐서린 바르소티(Catherine Barsotti)

영화를 영화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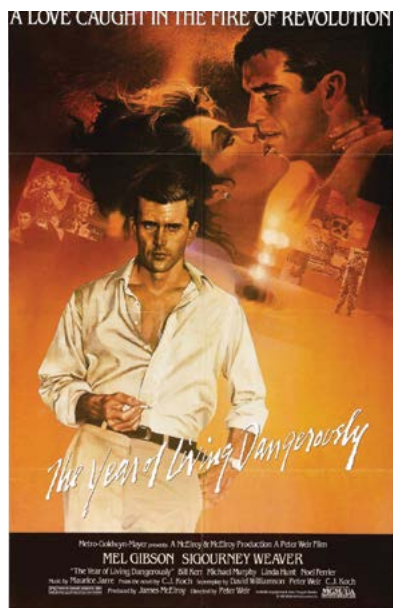
번역 및 감수_신국원(총신대 교수)

포스트모던 시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포커스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으로 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실천적인 질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두 가지 신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들어라!” 라고 외치는 선포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내용을 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 위에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변증적인 신학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증적인 신학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접촉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영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 도구이자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IVF 선교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졸업 후 주변 분들은 당연하게 제게 감사로 섬기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깥 세상으로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경제학 전공을 살려 미국에서 꽤 큰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4년간 일하면서 도대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즈음, 그때 친구와 <가장 위험한 해>(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 1983)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네요.

이 영화는 극심한 빈곤과 좌우익 이념의 대결로 위기를 맞은 인도네시아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면서 특파원들이 취재하러 들어가는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초창기 무명시절에 찍은 영화인데 신참 해외특파원 해밀턴으로 등장합니다. 신참 기자인 해밀턴의 머릿속은 특종을 터뜨려서 유명해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지독한 가난에 찌들어 죽든, 압제에 시달리든 그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화의 다른 주인공인 사진기자 빌리는 해밀턴이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해밀턴을 슬럼에 데리고 들어가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빌리는 그에게 현실을 보고 이 사람들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게 도와라고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여전히 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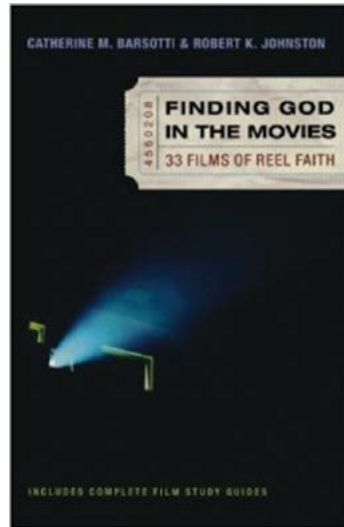
가장 위험한 해 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 1983

에 유명해질 생각만으로 가득해서, 나는 이곳을 변화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쓰러 온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빌리가 누가복음 3장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설교로, 회개하라 외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대답합니다. 또 세금을 걷는 자는 정당하게 걷고, 군인이면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빌리는 단순히 말뿐 아니라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여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화 곳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충실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슬럼가의 한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쌀을 가져다줍니다. 그 집 아이가 오염된 물을 마셔서 병이 나자 병원에 데려가라고 돈도 줍니다. 빌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응답한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스토리나 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심지어 동남 아시아에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아이의 큰 눈을 보는 순간 대학생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이주 노동자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농장의 농업용수를 마실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빌리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그런데 그 질문이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누가복음 3장 설교를 처음 들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영상 설교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저는 제가 속한 소그룹에 누가복음을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 제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멕시코의 가난한 동네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영화가 제 삶에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 제 은사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를 목회 사역에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영화를 설교의 예화로 사용합니다. 영화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사용될 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서서히 비주얼 스토리텔링,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Finding God in the Movies: 33 Films of Reel Faith, Barsotti, Catherine M., Johnston, Robert K.

제가 쓴 책 중 『영화에서 하나님을 찾는다』(Finding God in the Movies: 33 Films of Reel Faith)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영화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기록한 책입니다. 설교 중 목사님들이 예화로 사용했던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창끝>? 글썬요, 혹시 <쇼생크 탈출>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19세 이하 관람 불가입니다만,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이고,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며 인간 존엄에 관한 이야기여서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를 보고 나눠야 할까요?

세대를 아우르는 힘

영화는 특히 청소년 사역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세대 간의 사역”에 힘이 있습니다.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영화 속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든, 가정 사역부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화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영화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모임을 이끌도록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화를 보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한번은 어떤 한국 학생이 겁을 먹더군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LA의 아주 전통적인 한국 교회인데 보수적이라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임목사님께 가서 의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한 후, 기도회 시간에 영화 수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심야기도회에는 어른들만 모이기에 다양한 연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광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어떤 영화를 볼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엑스맨>(X-men)을 볼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맨>은 1950년대 만화에 기초한 슈퍼 히어로 액션영화거든요. 그러나 학생이 그것을 선택했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숙제를 했고, 이후 굉장히 기쁨에 차서 이야기하더군요. 기도회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도 오셨고, 아이들도 광고를 보고 부모님과 함께 왔다고요. 원래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날 100명이 넘게 와서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고 말입니다.

영화는 돌연변이로 인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파악하여 법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론하는, 일종의 찬성과 반대의 청문회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돌연변이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여 인류를 복되게 하려는 사람들과 악하게 사용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의 싸움에 관한 영화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이상한 사람들, 돌연변이들의 영화를 보여주니 영화가 끝나고 한동안 교회 안에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아 영화를 보던 16살 된 아이가 “영화 너무 좋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 학생이 “뭐가 좋은데?” 하고 물었더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일어나서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 다른 아이가 답했답니다. 자신도 돌연변이처럼, 별종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고 말이지요. 어린아이들이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회중에게 이야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침묵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아주 나이 많은 여자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

지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50년 전에 자신이 이곳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했을 때, 자신이 바로 별종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합니다. 이민자로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룹을 나누어 별종이라고 느꼈던 경험을 서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어려웠던 그 순간 누가 그리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략 30분 정도 이야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0시가 넘어도 계속되어 결국 목사님이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세 번은 기도회하고 한 번은 영화를 보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기독교 영화나 대단한 영화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세대 간 대화, 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이나 제자훈련 등 어떤 환경에서든 말이지요.



기독교 영화나 대단한 영화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세대 간 대화.
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이나 제자훈련 등
어떤 환경에서든 말이죠.



함께 보면 좋을 책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윌리엄 로마노프스키, IVP.

공동체로의 초대, 영화 밖으로의 초대

영화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저희 집에 성경공부 하러 오세요.” 라고 초청하면 부드럽게 “못 갑니다.”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확 닫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인 존스톤 교수(Robert Johnston, 풀러신 학대)와 함께 부담스럽거나 결끄리지 않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영화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초청해 보았습니다. 이웃도 초청하고, 제가 운동하는 시설의 분들도 초청하고, 교회의 교우들도 몇 분 초청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본 영화는 음식을 나누는 식사에 관한 영화였는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주제에 맞춰 그날의 식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면 이탈리아 음식, 중국 영화면 중국 음식,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멤버가 바뀌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함께하기 위해 등록하고 기다리는 대기목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질문의 답을 얻고자 갈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는 그룹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저의 관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나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 깊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미혹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후, 한 여학생이 달려와 질문을 했습니다. 마르크스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파이이야기>(Life of Pie)라는 영화를 봤답니다. <파이이야기>의 표면적인 내용은, 난파한 배에 호랑이와 단 둘이 남은 주인공이 잡아 먹힐까봐 배 밖에 매달린 채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별이 가득한 밤에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마르크스 철학을 공부하는 그 친구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삶에는 철학 이상의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 더 큰 게 있고,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퍼스 건너편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다니는 여학생을 찾아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소통하다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하는 것 중 하나가 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영화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8개국 여성들과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스페인어를 쓴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문화권 사람들은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영화를 보면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보다보니 수용하는 내용과 인지가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영화가 오해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토론과 더불어 영화를 본다면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 자신들이 어떤 유형에 처하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볼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도망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해야하지 않을까요? 



캐서린 바르소티 박사

평생 경제학과 신학을 접목하는 작업을 해 왔다.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학, 영성 분야에 대한 강의와 영화 평론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Finding God in the Movies: 33 Films of Reel Faith>가 있다.

* 본 내용은 IVP와 풀러신학대학원이 협력하여 진행한 세미나의 내용이며 IVP의 협조로 게재되었습니다.

WORLDVIEW SPECTATL



위기의 기독교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한국의 기독교, 이대로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세상보다 더한 기독교에게

부르짖는 애절한 한 마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창조적 영성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일년전 서울의 한 대학교정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세간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반향이 대학가를 넘어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필자는 오늘 동역자들과 감히 묻고 싶습니다. 안녕들하시냐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식민지의 악몽과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번영의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습은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한 철학자가 말한 『피로사회』(한병철, 2012)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현재의 삶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앞날은 이처럼 어두운 것일까요?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자부심은 헛된 꿈이었던가요?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유해졌는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푹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는 좌절하고 노인은 절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또 다시 청년들이 환상(vision)을 보고 어른들도 꿈을 꾸는 일(골2:28, 행2:17)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활력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근대화의 질곡속에서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선배 목회자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와 농어촌에서 지금도 악전고투를 벌이고 계신 동역자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미래는 한국사회보다 더 암울할 것이라는 예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500만 성도로 줄고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청년대학부의 위축

과 중고등, 유년 주일학교의 감소추세를 살펴볼 때 이런 예측은 단순히 불길한 경고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날 한국교회는 척박한 현실 속에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앞서 있었고 주변문화가 강하지 않았기에 상황대처가 그리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엄청난 양적·질적 우위를 점하고 교회를 주눅 들게 합니다. 그 화려함은 성도들까지 매혹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이것은 특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모르고 자라난 젊은 세대들 사이에 특히 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문화추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이자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본 단체 실행위원 및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MP),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복있는사람) 등이 있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변화한 현실문화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약합니다. 자연히 매사에 대처가 서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처를 강구하려는 연구조차 부실해 총체적인 대책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을 갱신하고 첨단 미디어를 채용하는 등 신경을 써보지만 젊은 층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세상 문화의 힘이 날로 강력해져 가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힘과 매력을 잃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편, 날로 선정적이며 폭력적이 되어가는 세상 문화는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오염은 물과 공기의 환경오염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바꿔야 할 교회가 역으로 문화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회와 문화의 영적 기초가 기독교적 삶의 원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문화에 대해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처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날 한국교회도 이런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힘을 통해 암울한 현실 속에 삶의 소망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계몽활동을 통해 구속에 젖은 문화를 변혁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역사를 선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내부적 위기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회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형식과 첨단 미디어를 예배와 전도에 도입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류 문화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소통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위문화나 식민지로 떨어질 위험을 초래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문화적 지체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문화를 변화시킬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에 갇힌 기독교문화를 세상 속으로 펼칠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다차원적입니다. 우선 수적 약화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떠나는 이들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 중에는 특히 학력이 높고 교회에 헌신했던 직분자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이탈은 더욱 문제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는 교회와 특



히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출석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당장은 아니나 언젠가 다시 나간다(53.3%)’, ‘가능한 빨리 가겠다(13.8%)’, ‘나가고 싶지만 불편하다(12%)’, ‘교회 가고 싶지 않다(21%)’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는가가 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질적 약화도 심각합니다. 이른바 명목상 기독교인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른바 제3세대의 명목상 신앙의 위험이 무엇인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목화와 교회의 세속화는 동전의 안팎입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신앙교육 뿐인데 이에 실패하고 있어 교회는 다음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갖게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의 열정으로 땅끝을 보는 비전은 있지만 시간의 끝을 보는 눈이 어두운 탓입니다.

사회의 반기독교 정서도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지도층과 지성 계층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복음이 들 어간 사회와 문화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며 복음은 어느 사회에서나 “손님”인 적은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큰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박해와 반대에 처하는 것과 지금처럼 비판을 넘어 조롱을 당하는 것은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그 원인이 교회 내부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사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교회 비판 여론

지난 날, 세상은 주로 이론적 비판을 통해 신앙의 비합리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회나 목회자, 신앙인의 탈선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의 “반기독교 기사모음”은 구체적인 사례들의 총집합입니다. 아울러 대형교회의 내부적 문제나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 등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소위 “개독교 박멸”을 표방하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KBS 1TV가 2004년에 공영방송 초유의 본격적인 교회 비판을 했습니다. <선교 120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작진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한국 교회의 향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31.1%)’,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59.3%)’, ‘무응답(9.7%)’이라는 통계 수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특집 방송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1) 자기 교과/자기교회중심(40.3%), (2) 교회의 대형화/성장제일주의(23.9%), (3)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12.6%), (4) 비민주적 의사결정/불투명한 재정운영(9.5%), (5) 세습(5.8%). 이 가운데 76.8%를 차지하는 첫 세 항목이 성장 위주의 목회가 낳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그간 고도성장으로 인해 양적 팽창은 이루었지만 소수였던 옛날보다 영향력에 있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성장과 이에 부합하는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는 총체적 부적응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태도는 한국교회의 일반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신앙지상주의, 내세적이고 현실도피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역사 의식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신앙고백은 정통이지만 실천적인 이단의 문제나 교회교육의 약화로 신앙이 열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 물량주의에 빠져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고 기복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충족시키는 인간중심적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자성의 소리도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 보편성과 연합정신을 잃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다는 말은 곧 질적 저하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뒤쳐지는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특집도 한국교회의 120년 역사를 “영육”이라 불렀습니다. 민족 독립과 근대화와 민주화, 그리고 사회봉사에 큰 기여를 했으나 동시에 친일과 독재에 유착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자성을 촉구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제 몫을 하지 못한 사실이나 있을 만하면 밝혀지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회적 반감이 형성된 것도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반성과 비판의 겸허한 수용

이런 비판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단편적이거나 감정적이며 피상적인 대처가 아닙니다. 바른 대처는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와 덕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교회의 민주화나 재정적 투명성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위기는 교회의 본질인 경건의 능력과 거룩성 상실에 있습니다. 비판과 공격을 직접적으로 맞받으려 하거나 변명하기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바른 기독교적 봉사를 확립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사회봉사를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했거나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나 방책으로 여기고 있다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적 사회봉사는 단

지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착한 삶과 선한 행위를 넘어 복음의 실체를 희생적 봉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근본적으로 섬김입니다. 복음에 빛진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행여라도 시혜하듯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창조성이 약한 것은 문화변혁의 큰 걸림돌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삶을 제약하기 보다는 복음의 참된 자유로 상상력을 활짝 열어 문화적 창조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배와 교회 활동을 전도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만 생각하는 실용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다양한 문화적 해석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규모에 걸맞은 문화적 영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확고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의 문화에 대한 바른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문화충돌이 잦아지고 심각해진 것은 세계화로 인해서 어디서나 다양한 종교와 이념에 입각한 이질적 문화들이 뒤섞인 탓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깊이 의식해야 할 때가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국문화라는 추상적 개념 속에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권위주의와 급진진보 문화, 심지어는 동성애와 엽기문화가 뒤섞여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신념과 가치가 다른 문화와 부딪치며 생기는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원주의 문화와 문화전쟁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바른 자세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오늘날 문화가 너무 자주 정치화되는 경향이 문제지만 이에 대한 물이해와 무관심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방관적 자세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인들은 대체로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에 밝지 못합니다. 의식 있는 시민들조차도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된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갈피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사회는 흔히 정서가 지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서가 지배하는 상황이 이른바 문화전쟁의 조건이 됩니다.

다원주의 사회 내의 문화전략

오늘의 세계가 다원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게 된 것도 교회에 부담입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이 공존합니다. 다양성에 관한 높은 관심은 세계화된 오늘날의 중요한 문화적 변화입니다. 문화의 복잡한 현상 자체가 다원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원주의는 보편성을 가진 진리와 가치의 실종에서 옵니다. 이로 인해 가치상대주의나 종교다원주의가 위세를 떨치면서 교회는 안팎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처럼 오랜 역사 속에 샤머니즘, 불교, 유교, 기독교가 공존해 온 경우에는 다원주의가 유일한 사회적 공존의 길이라는 압력이 더욱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명백히 다원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제까지 과학과 이성의 객관성의 압박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와 신앙이 세계 평화나 국가적 결속에 장애가 되며 안정된 삶의 최대의 장애나 분열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원주의 사회일수록 확고한 입지를 가진 목소리가 사회적 담론과 실천에서 힘을 발휘하게 마련입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해 사회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목소리를 냄에 있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말하는 방식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증의 기초는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하지만 온유와 겸손한 설득으로 대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벧전 3:15-16)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적 윤리를 강요하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 사회내의 존재하는 문화적 긴장에 편승하여 문화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헐고 화해의 사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상호신뢰와 믿음에 기초를 둔 사랑에 입각해 움직일 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안정과 발전에 중요합니다. 충돌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살롬을 이루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살롬은 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공의와 화평이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비전은 갈등의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이해에 기초해서 선을 행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복음은 전인적인 회복이요, 삶의 깨어진 모든 부분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념과 세계관적 갈등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뿐 아니라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뿐 아니라 교육과 노동문제는 물론 예술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일수록 다음 세대에 소망을 걸려면 목회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끌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사회가 날로 다변화되고 다원화되는 추세를 이해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안목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성의 회복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나 사적 영역에 천착할 경우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기독교 진리의 희생과 섬김에 입각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익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를 정착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자원봉사나 재난구호, 이웃사랑과 기부문화에 모범을 보임으로 사회 자분을 든든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공적 담론에 적극 참여하여 기독교적 안목과 비전을 제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계에는 CBS를 비롯해 다수의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제작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매체가 설교 중심이 아니라 일반 미디어에도 주목해서 방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작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 전문가, 문화인, 예술인, 기획·제작자 양성이 필요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민단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지난날 YMCA나 YWCA는 시민사회운동의 리더로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두 기구는 좁은 의미의 선교 활동을 넘어서 사회계몽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오락에 걸친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국내의 가장 오랜 비정부기구(NGO) 중 하나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사회참여와 사회적 무관심 사이에 끼어 고민하는 신앙인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결과로 태동한 이 단체는 다차원적 활동과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절제와 근면성 운동에서 공명선거 감시와 대중문화의 음란폭력성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운동이나 정직운동, 교회개혁운동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 운동을 펴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시민운동도 대화적 계

도와 간접적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영역입니다.

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와 문화가 건전해지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기독교문화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기보다 치유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문화이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인한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치유와 화해의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쉽게 휘말릴 때 이념적 편향성의 위험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독교 자체가 정치적 또는 이념적 진보나 보수와 동일시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건, 사회문화적 이슈이건, 사안을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적 시민교양과 살림의 비전

그리스도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공공의 장에서 사회-문화적 실천에 나설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세계관이나 종교적 확신을 가진 이들에 대해 공평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시민교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확신이 무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세워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성육신에서 나타난 자기비움과 겸손한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섬김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있는 곳일수록 복음의 초월적 관점에서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국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평화와 공의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 기독교 신앙임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회참여야 말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성경적 변혁입니다.

기독교 사회문화적 실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승리주의

(triumphalism)와 패배주의의 양극을 넘어서는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회문화적 책임 앞에서 무책임하고 비현실적 회피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그와 반대로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승리주의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지금처럼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이제껏 익숙해진 전도나 사회참여 방식이 효과적인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선교전략의 대가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서구교회를 향해 진심어린 충고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기대려는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우위를 전제로 하는 선교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구 교회가 탄생한 이래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픈 시크릿』, 2012)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부유하고 힘있는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금과 은은 없어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비긴의 또 다른 충고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중심의 전도와 목회방식에 대한 재고 요청입니다. 특히 “군사작전을 벌이거나 상업적 판매활동을 전개하듯” 교회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도방식이 과연 성경적인지 혹은 특정 선교학 이론의 영향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도 70-80년대의 급속성장시기와 같은 수적 부흥을 기대하며 거기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대처할 바른 전략일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를 선도한 기독교 공동체의 공통점은 자신들 시대의 문화의 영을 분별하고 기독교적 원리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물론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다면 증거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복음적 가치와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삶의 양식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사회의 문화를 무조건 배격하지 않으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변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문화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적절한 자신감에 입각한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창조적 영성 비전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기는 또한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를 통해서 정화시키시고 교회를 순수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함께 꿈꾸어 봅니다. 이 위기에 대한 바른 대응은 회개를 통해 복음에 충실한 참된 경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바른 교리와 윤리의 정립이 관건입니다. 그 위에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란 짜여진 기성의 틀 속으로 혼련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성숙을 위한 제자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 안에서 창조적 자유를 누리는 것도 성숙을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특정한 삶의 방식과 동일시한 나머지 딱딱한 독단주의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숨막히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복음의 창조적 영성이 모든 성도들과 특히 청년들을 통해 나타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결코 기계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자발성에 기초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다음세대로 하여금 그들 나름의 신앙적 상상력과 창조성의 여지를 넓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문화유산들은 놀랍도록 창조적이고 다양합니다. 참혹한 형틀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꾼 상상력은 경이롭습니다. 십자가의 창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가 공적인 장에서 전파되고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공적의 활동을 통해 이루는 선교와 복음화 전략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개혁이 절실히 요구될 때 해내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구한말 한국의 모습이 그러할 때 교회는 민족과 사회개혁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혁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타율적인 개혁은 대가가 큼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의식 개혁과 삶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혁이란 과거에만 집착하는 수구나 미래에만 목매는 급진과 다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개혁교회는 [스스로를] 항상 개혁한다”는 말(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이 구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을 전통주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Jaroslav Pelikan, *The Vindication of Tradition*, 1984).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도 교조적으로 굳어지면 “죽은 정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창조적인 미래의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세기전 미국사회와 교회는 흑백갈등의 큰 어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 속에서 이사야의 환상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역사에 남을 연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고 했습

니다. 그것은 중산층 미국인들의 세속적인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위시한 신앙의 선조들의 꿈입니다. 킹은 환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의 불의가 여전히 만연한 사회를 직면해 “우리 앞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지만, 나에겐 꿈이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노예였던 옛 조상들이 꿈꾸었던 자유케 될 것과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상상력과 창조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에 뿌리를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비전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비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속의 드라마이고 창조와 회복의 역사며 재창조의 비전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꿈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금 밝아지길 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비전이 회복되길 빕니다. 교회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또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vision)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본 칼럼 내용은 CBS 포럼에서 신국원 교수님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 발표하신 내용을 CBS와 신국원 교수님의 동의를 얻어 게재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두 얼굴



결국 드러난 한국 사회의 민낯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톨릭에서는 교구와 수도회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개신교회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비단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10여년 전 이라크 파병 문제를 시작으로 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진보와 보수를 신학대학이나 교파로 분류했습니다. 이를테면 한신대는 진보, 총신이나 고신은 보수, 기장은 진보, 합동과 고신은 보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거치면서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사라지고 교단 내의 정치적 성향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한국 기독교의 주류는 보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파병문제를 놓고 의견차이가 생겼습니다. 신학적 차이나 교파의 차이보다는 세대 차이에 따라 대체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 젊은층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세월호 사건을 보는 눈도 그 연장선 상에 있지 않나 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교통사고로 수천 명이 죽는다고 하면서, 세월호 사건도 희생자가 많았을 뿐 여는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랭 바디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accident'가 아니라 사건'event'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는 사람의 실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사건은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나게 하고 관련이 없어보이던 것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것은 회자된 것처럼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저는 세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한 것처럼 기술의 발달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도 '위험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 둘째 '관피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이고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셋째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 기독교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위험한 사회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회보다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 무책임한 사회보다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밖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회가 아닐

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그러한 사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이며, 정의롭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자문해 보게 됩니다.

왜?

왜 한국 사회가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불의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또 한국교회는 어찌다가 한국사회와 꼭 닮은 꼴이 되었을까요? 20세기 후반 한국 역사는 특이한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6.25 전쟁은 온 나라와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는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으로 남았고 모든 가치 설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회정의, 책임, 안전, 평화는 '살아남는 것'에 언제나 밀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만 해도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는 좌파보다는 우파가, 진보보다는 보수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미 일본 강점기에 시작되었지만 그 뒤 훨씬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과 신학대학은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길을 걸어왔고,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교단과 신학대학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수를 차지한 주류 기독교는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



강명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벨기에 루뱅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칸트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교와 계명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강교수의 철학 이야기」,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타인의 얼굴」,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강명안 교수의 십계명강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등이 있다.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과거보다 훨씬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보수를 넘어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전후에 유년기를 보낸 세대들은 80년대 이후에 태어나 자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년 전 네덜란드에서 열린 기독교 철학 심포지엄에서 '한국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기독교 신앙을 시간적(초기-중기-최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 도교, 불교와 관련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60년대 말까지 한국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세론적이고 내세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 그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흐름이 전환된 것이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여기"에서 복음과 구원을 구호로 외치면서부터였습니다. 순복음교회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절실할 때였습니다. 그 영향이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잘 살아보자고 외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현세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은 한국종교의 특징을 '현세성'으로 꼽는데, 이제 기독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나를 깨뜨리는 것

대개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신앙이 진보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한국 기독교의 진보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이 대거 정계에 흡수되면서 사실상 한국 기독교 내의 진보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고 그에 걸맞는 보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보수신학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 전통의 교회 안에서 진보적 성향의 젊은이들과 보수층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의 면모를 보면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면서도 진보적 방식으로 저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과 신앙은 보수적이더라도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틀로 신앙을 규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전통을 고수하고 새로운 것에 저항한다거나, 진보라고 해서 과거는 다 버리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지켜야 할 부분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할 부분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보수가 곧 정치적 보수라거나, 신앙의 진보가 정치적 진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한 요소, 곧 자기 보존의 성향을 끊임없이 깨뜨려야 합니다. 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 곧 존재 유지 경향이 모든 개체 사물들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기 보존의 성향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추동하는 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지요.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신학과 삶?

삶의 진보성은 한국 보수신학의 보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보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의 인격과 신격, 예수의 삶과 사역에서 나오는 진보성이지만 한국교회의 보수성과 보수신학에서 진보적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복음서를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야기하며 그저 윤리적으로만 다를 뿐 복음서의 내용이 지니는 급진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가르침, 치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 이 두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고통받는 자에 대한 연민, 공감과 연대, 그 사랑으로부터 진보성이 나옵니다. 진정한 보수는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진정한 진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구호로만 남아있습니다. 진짜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semper reformanda) 신학이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성향, 자기 보존과 자기 초월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초월 없는 자기 보존은 과거의 것을 보존하려고만 할 뿐 쇄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쇄신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는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히 배운 다음 정통신학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칼빈도 철저한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에 인용된 라틴 저자만 55명입니다. 칼빈은 교부들뿐 아니라 키케로, 세네카, 베르길리우스의 저작에도 정통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인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성경을 토대로 한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인 것만 공부해서는 보수신학의 쇄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미국이나 한국 모두 ‘영혼 구원이나, 사회 구원이나’를 두고 오랫동안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 막 바지에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선교사로 유명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뉴비긴에게 “신부님은 복음주의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난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No, I'm not!).”라고 강하게 답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인용하고 외우지만 실제로 읽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사회 정의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는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를 간과한다는 겁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고 로잔 언약이 나왔습니다. 로잔언약은 전도와 사회정의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한국에도 열심히 소개되었지만 한국의 주류인 장로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로잔 언약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존 스토틀(John Stott)도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전도와 사회 정의는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 or)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both) 강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두 축을 고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심으로부터 반경을 넓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삶의 자리를 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말씀으로 치유 받고, 회복되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큼니다. 그래도 교회의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중심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의 일터는 교회이고, 성도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양육할 때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생활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처해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강조되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은 지극히 내밀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만 동시에 공적인(public)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지혜

다원주의에는 ‘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와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다원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중국 음식이나 이태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의 체계는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유교, 도교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종교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종교현상학으로 보면 기독교도 경전, 공동체, 예배, 성직자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현상을 서술하는 용어로서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다원주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된 다원주의입니다.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과 지혜롭게 공존하려면 리처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에서 강조한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마우가 강조하는 것은 ‘제발 좀 타인을 배려하는 기독교가 되고 확신은 갖되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존경, 선한 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닮자

한국 개신교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6.25 이전까지의 기독교 신앙은 소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지배한 극단적 내세주의, 6.25 이후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복 받자'는 현세주의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만일 구호를 세워야 한다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나 '예수 믿고 복 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닮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우리에게 부가된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의 본을 따르는 삶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걸어갈 길입니다.

19세기 자유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Savior)라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이상적 인간의 모습으로만 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가 먼저이고, "단순히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Lord)가 되신다"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는 우리 삶의 모범이며, 우리는 그분이 사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예수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삶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한국 기독교의 미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 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시 조선)은 다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교적 관례에 따라 제사 지내고, 도교적, 불교적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단일종교 정체성을 요구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딱히 응답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불교신자'로 말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무교(無敎)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계없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세속화'는 갈수록 더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이 더 강화되고 소속감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받고 복 받고 소속된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나가거나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나가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정쩡 앉아 있는 경우도 많겠지요. 진보인가 보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어떤 신앙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에게서 절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경우가 좁은 길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의 핵심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버리는 삶과 세상살이의 수단으로 신앙을 얘기하는 삶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지난 11월,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의 월례포럼 "기독교의 두 얼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의 협조 하에 설요한 기자(개혁정론)의 도움을 얻어 기재되었습니다.

공적 신학과 그리스도인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양화된 오늘의 사회 속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한국 역사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민주 시민 사회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교육과 정치, 경제 등 계 분야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적은 어떠한가요?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성적은 C+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초라한 성적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적 영역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윤실이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변하지 않는 항목,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태도와 배타적 태도 때문이라는 통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내적으로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조사 결과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시민 사회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미숙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 미숙함이 마침내 무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이기적 존재로 살아가며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져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미숙한 신앙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지 12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함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서둘러 부끄럽고 미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 신학의 근거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창 1:26-28은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창조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노동과 문화의 사명이 왜곡되었지만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받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새 계명"(요일 1:7-11)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언인 고전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터넷 신문 더보이스의 편집위원과 뉴스미션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문화와설교연구원 대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 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답변」, 「세간의 사과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 변혁의 삶」, 「청년 내가 가야 할 길」, 「정직한 성도 신뢰 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승리」, 「변화는 가능하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도서」 등이 있다.

이처럼 ‘창조명령’과 ‘새 계명’은 공적신학의 핵심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통합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물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작은 예수의 초상화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적 신학의 실천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인 리처드 마우는 “시민 교양”을 언급하며 이를 ‘공적인 예의’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중용을 지키고, 타인을 향해 예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적 신학의 실천은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예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창조명령과 새 계명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나라 전체로, 개인 복지에서 사회복지로, 개인의 의견에서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성 때문인데, 이 유일성이 장애물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사회는 점점 다양화되고 종교적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적 신학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공적 신앙의 준비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신 되심을 나타내는 일은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며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7:11-26).


공적 신학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요구합니다. 신앙고백 없이는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고백 없이는 공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고백이 내면 깊이 자리 잡을 때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적 신앙은 참된 경건의 실천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공적 신앙은 이렇게 참된 경건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에 대해 중요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정결한 경건입니다. 오늘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셋째, 공적인 삶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 세속화를 막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열심을 내다가 풀이 죽는 경우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신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정직’, ‘책임의식’, ‘배려심’ 부분에 힘써야 합니다. 정직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듭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내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견고한 역사의식에 기반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을 때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심의 함양입니다. 온유함과 사랑이 없는 진리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심이 있을 때 배타적이지 않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인격적인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특히 건덕을 위한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잘난 체 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다섯째, 자발적 불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과 동일하게 부와 허영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장기려 박사 같은 세상에 경종을 울렸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누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발적 불편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숙한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례한 신앙이 아니라 부러움을 갖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약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곳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더 깊고도 넓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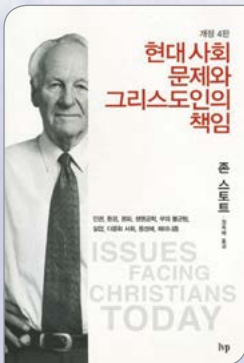
무례한 기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
저자 리처드 마우 | IVP | 정가 10,000원
원제 | Uncommon decency :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복음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세상 속의 기독교가 마땅히 보여 주어야 할 모습에 대한 열린 목소리를 높여 온 학자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 확대개정판인 이 책에는 현대의 기독교가 곧잘 드러내는 과격한 십자군식 승리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밝혀내는 탁월한 성찰이 담겨 있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열정적이지만 그만큼 무례할 수밖에 없다는 안팎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 주고, 그 대신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제시하는 역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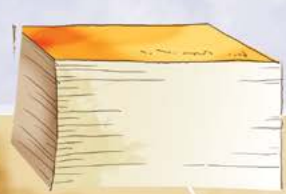
오픈 시크릿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선교
저자 레슬리 뉴비긴 | 역자 홍병룡 | 복있는사람 | 정가 16,000원
원제 | (The)open secret :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이 책은 인도에서 35년간 선교사로 사역했을 뿐 아니라 은퇴 후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을 가르친 뉴비긴의 선교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교학 입문서이다. 그는 선교를 한마디로 '공공연한 비밀'의 선포로 묘사한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복음으로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연하게 열려 있는 것이고, 오직 믿음의 눈에만 밝히 보인다는 점에서 하나의 비밀인 것이다. 삼위일체 신앙의 틀로 선교를 조망하고, 이어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선교의 이슈들(교회 성장, 선택 교리, 사회봉사 와 정의, 문화 이해, 타종교와의 대화 등)을 특유의 논리와 필치로 명쾌하게 다룬다.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저자 존 스토틀 | 역자 정옥배 | IVP | 정가 25,000원
원제 |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대략 1920년부터 50년간, 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에 맞서 역사적·성경적 신앙을 변호하고, 자유주의의 '사회 복음'에 반발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 전도의 책임과 함께 주신 사회적인 책임에 소홀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존 스토틀은 수많은 가치가 공존하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생각의 좌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하나님만이 돌보아 주시던 시간

청년연단

청춘 배틀, 넉넉히 이기는 방법



하나님만이 돌보아 주시던 시간



최현일 산부인과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을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을 시작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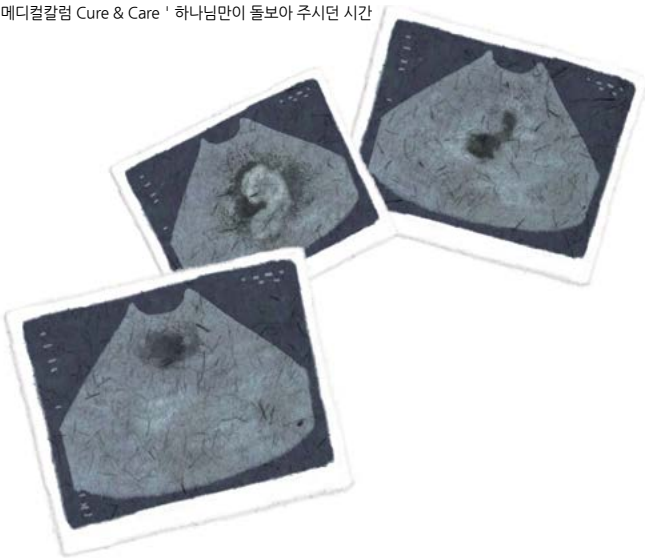
“축하합니다. 임신 6주예요”

“저기 초음파 영상 속에서 반짝반짝 뛰는 게 아기 심장이예요”

이런 대화가 진료실에서 울려 퍼지면, 많은 경우 기쁨과 경이, 감사의 찬사가 이어진다. 곧이어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산모의 다소 전략적(?)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임신인줄 모르고 했던 여러가지 일들이 생각나면서 걱정도 되고 앞으로 엄마라는 달라진 정체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대개 임신 6주 정도면 약 4mm의 체구에 심장이 생겨서 뛰기 시작한다. 기본적인 손발의 형태도 잡히고, 모든 장기도 원초적인 세포단위로 구성된 10주경이면 몸 안의 모든 기관형성이 완성되고, 이후에는 몸 전체와 각종 장기의 크기가 증가한다. 태어날 시기가 되면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인간은 약 4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후 성인이 되면 세포 수가 약 60조 개에 이른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임신기간 동안 초당 약 15만 개의 세포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다.

대개 임신진단은 임신 약 6주를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이보다 빠르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확실하고 안전하게 초기 임신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초음파로 확인하는 태아의 크기는 약 2-3mm만 되어도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우리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수정할 하나의 난자를 준비하려고, 난자를 둘러싼 수천 개의 세포들이 스스로 죽는 운명을 택해야 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다낭성난포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세포들은 자기를 희생했다. 자기를 희생해서 대대를 이어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건강한 정자를 선택하기 위해, 정자는 자궁경부의 늪과 같은 생물학적 조건을 통과하여, 자궁 내로 들어와 배란된 난소를 찾아가야 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천만 개의 정자 중 약 이백 개의 정자만이 하나의 난자에 도달하게 된다. 약 사백만 개의 난자 중 하나와 수천만 개의 정자 중 하나가 만나서 비로소 인간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는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정은 자궁이 아니라 나팔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궁의 임신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수정된 초기 인간세포들은 약 4cm의 나팔관을 따라 자궁으로 힘겹게 이동해 가야 한다. 약 일주일간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세포들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유전자적 구성을 거의 완성하며 앞으로 생겨나야 할 각종 장기들의 준비 과정과 몸의 지도를 완성해 간다. 이제는 지도에 따라 자라기만 하면 된다.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처럼 자신이 엄마가 된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생각해보면 임신이 진단된 시점이면 대부분의 장기들이 생겨나 있는 상태이고 심장을 비롯한 장기들이 기능을 시작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 땅에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되어 유전자를 구성하고, 장기를 생성하여 심장이 뛰고 움직일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임신진단이 가능한 시기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즉 그 생명이 모태 내에 생겨나고 있던 초기에는 엄마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혹 불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연약한 생명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시기에도 새 생명을 지켜보시며, 주관하고 있던 유일한 분이 계셨다. 이미 그 생명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 분이여! 여러 생명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부모조차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돌봐주시는 생애 최초의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이다. 아무도 내가 생겨난 것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의 흔적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인 것이다. 우리 생애 최초의 시간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이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은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거쳐서 태어나고 자라가게 된다. 혹시 우리 삶의 순간 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이 돌보아 주셨던 시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돌봄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프니까 환자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젊음'이라는 단어가 생기를 잃고 있다. 최근 SNS에는 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제목인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비꼰 '아프니까 환자다'라는 문구가 인기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적으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에 마음이 병들어 버린 것 같다. 기독청년들 이라고 현실이 다르진 않다. 세상은 원칙과 실력만 가지고 승부하기 쉽지 않고, 결혼도 신앙만으로 되지 않는다. 정말 인맥관리를 남들처럼 하지 않아도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실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예배처소 마다 넘친다. 많은 청년들이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교회에서 헌신한다.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는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께 간구한다.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꾀꾀하게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건만,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속 시원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역시 현실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정석인 것인지 의문마저 생긴다. 한 개인의 성공을 통해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은 분명 청년이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리더?

이 시대 미디어는 여러 영웅이나 리더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파한다. 리더가 되고 성공한 삶을 살아야 소위 영향력을 가진다. 결국 미디어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눈에 보여질만한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더구나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은연중에 스타를 양산해내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은 스타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들처럼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난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환난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장애물로 생각한다. 삶의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달리 그저 영적 공격으로 인식한다. 그러다가 끝내 그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신앙마저 흔들리게 된다. 분명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꿈꾸며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헛갈리는 것이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권면했다. '이 세대'는 이 시대의 신(gods)이나 정신(spirits)을 나타내는 바울의 표현법이라고 한다. 세상은 개인의 성공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다. 세상의 통치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다. 즉,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이상, 스스로의 존재와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적인 돌파구를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애초에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세상 가치가 아니었다. 물론 욕과 솔로몬의 예처럼 부귀영화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축복의 본질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높고 영화로운 곳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오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나를 세상에서 높 이려는 것은 주님의 옆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열두 제자처럼 헛된 일일 뿐이다.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청춘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반면 돈, 명예, 힘과 같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 끝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초조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다름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였다. 어찌 보면 '근심, 가난, 힘없음'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 청년과 같다. 비록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기댈 곳 없는 가련한 자이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 된 부요하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우리 모습에 영향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목하는 우리의 외형적 성취보다는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대를 바꾸게 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세상이 정의롭거나 공평했던 적은 없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세상이 버린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시는 분이다. 자녀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해야 영향력이 있고, 부요해야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힘없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뭔가 특출하지 못한 것으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십자가 도리로서는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어제 혈혈단신 기초수급대상자로 살아온 한 70대 어르신이 1천만 원의 거액을 사회에 다시 헌납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정부 세금으로 받는 지원금을 쪼개어 모은 돈이라,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를 걱정하여 여러 번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돌려준다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보다 넉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이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격려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이렇게 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자 근거이다. 🍀

'청년연단'은 기독교청년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은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독교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2015년 1/7(수)부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기부금 영수증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 2014년 1월~12월)
로그인 ▶ 내정보관리 ▶ 기부금영수증 ▶ 내역확인 및 PDF파일 출력
2. 회원님의 편의와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5일(목)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단,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있을 경우에 한하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지정기부금 : 지급액의 15% 공제 (소득금액×30% 한도)
4. 기부금 영수증은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우편발송 되오니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문자신청 : 02) 754-8004 (성함, 생년월일 기재)

문의 : 02) 754-8004 (김고운 간사) info@worldview.or.kr

서평

무신론 기사,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서평에 앞서, 복음과 지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종학 교수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다. 특히 기원 논쟁과 같은 피곤한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는 태도가 매우 존경스럽다. 필자도 대학원 시절 여러 해 동안 기원 논쟁에 관련한 공부를 하고 논쟁에 참여해 보았다. 상당히 피곤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며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참여하기보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것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기도 하다. 기원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학이나 학문의 차원이 아닌 자신이 지금까지 이해해 온 삶의 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

〈무신론 기사,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에서는 기원 논쟁에 관련된 과학과 신앙의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쉬운 문체로 잘 설명하고 있다. 2009년에 초판이 나왔고 5년만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장을 추가하여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진화 창조론(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 다루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깊이 고민한 흔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창조 신학



문준호 KAIST 내에 위치한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에서 연구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AIST에서 물리학으로 이학박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MA)를 취득하였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 총무를 거쳐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더 풍성해지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10p). 이 책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 창조과학, 진화론, 지적설계론 등에 대한 개괄, 유신론적 진화론(진화 창조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강영안 교수님이 추천사에 쓰셨듯이, “존 폴킹혼이나 프랜시스 콜린스의 책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다. 특히 신앙과 과학, 또는 유신론과 과학에 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을 잘 풀이해 놓았다. 기원론에 대한 기본적 질문들과 갈릴레오 재판과 같은 역사적 상황,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견해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과학의 다양한 측면이나 지적설계론의 논증에 대한 정확한 제시와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139-142, 167, 180, 186-188, 197, 200, 202p), 주로 기존 유신론적 진화론의 전형적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진정한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론이 아닌 정형화되거나 미디어에 비취진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을 비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종종 발견된다. 또한, 기원 논쟁에 있어 진화론이 지니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고려가 약한 것

도 아쉬운 면이다(159-172p).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곳에 쓴 글이 있고¹⁾ 본 서평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론에 관심을 갖기 위한 입문서로서는 나쁘지 않은 책이다. 특히, 자연적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책의 통찰로부터,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발견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243, 244p).

과학과 신앙의 접점에서

저자는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과학에 대한 낭만적 낙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현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학적 탐구와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172p), 과학이 종교와 인식적 측면에서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68p). 그러나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과학의 한계에 대해 비과학자들보다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과학의 전제와 방법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태도 또한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지니고 있는 극단적인 객관주의적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주관적인 세계를 창조한다.²⁾ 물리학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로 파악한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기 위해, 보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극단적인 주관성을 띄기 때문이다. 과학적 방법론은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 과정에 변화를 일으키며, 결론적으로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왜곡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방법론과 인식의 변화를 극복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원론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197p).

과학의 치명적 한계는 아주 오래 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물리법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그 물리법칙이 제시하는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열죽음(heat death), 즉 열역학적 종말이다. 현재의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미래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자연은 부패하고 사람은 사망하며 방사성 원소들은 분열되어 해체되는 대로 방치될 것인가?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는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은 기독교의 미래 소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베드로 후서 3:4). 진화론적 진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지 못한다. 궁극적 미래에 관하여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것은 진화론적 진보가 아니라 신적 갱신이

다. 궁극적 미래에 대한 과학의 예측과 관련하여, 비지성적 맹신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적 직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필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세계에서는 새로운 법칙이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다. 죄와 부패, 죽음에서 해방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현재의 물리법칙 또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 창조는 과연 현재의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까? 물리법칙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물리법칙 자체는 영원히 또는 140억 년 동안 변함 없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수천 년 또는 수십만 년은 물리법칙이 현재 상태와 마찬가지로 유지되어 왔다고 역사와 관찰 사실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십 억 년도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수십 억 년이나 오래된 과거를 말하는 우주론과 같은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우주론과 천체과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마술적’ 창조가 아니라(89, 243p) 현재의 물리법칙이 필요하며 140억 년이 필요할 것이다(152p).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과학자 그룹의 가정이 맞다는 확신이 지나쳐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논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으나 의견이 다르다고 비이성적,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필자도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엄밀한 과학적 설계를 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물리법칙을 전체하고 이 일을 한다. 그렇지만 수십 억 년 전을 추론하는 역사과학으로서의 우주론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수십 억 년 이전을 말하는 우주론이나 천체과학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과학을 거부하는 것

은 아니다. 나는 과학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든지 또는 다른 무엇이든지, 수십억 년 이전이나 까마득한 미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정말 사실과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기원 논쟁에서의 자세

나는 정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류 과학자들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진정한 합리성과 지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원 논쟁에서 주류가 말하는 것, 다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태도다. 물론 근거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믿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그 반대 극단도 문제이다. 내가 이런 문제를 길게 얘기하는 한 가지 이유는, 기원론의 문제는 단순히 주류 학문 권위자의 명성에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이다(151, 152p). 그러나 기원 논쟁의 실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문적 권위를 등에 업고 사실상 내용은 부실한 주장과 강요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 기원론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창조과학을 주류로 해왔던 국내 기독교 내부의 기원론은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참조와 숙고를 통해 더욱 분발하고 견고한 이론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양성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다가온다.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서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것은 신학을 포함한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와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문제는 기원론에 관하여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논쟁에서도 기원 논쟁과 비슷한 상황을 보곤 한다. 과학의 방향이 정직한 연구 결과와 건설적 토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헤게모니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반대 입장은 '주류' 과학의 입장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이단적 주장으로 분류된다. 물론 과학에도 주류 패러다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친 주류 패러다임에 대한 강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기원 논쟁에 있어서도, 창조론이 주류이든지 진화론이 주류이든지 마찬가지이다. 쉽지 않겠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썼다는 것이다. 기원 논쟁의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한 번 들여다보고 싶다면, 특히 유신론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기 원한다면,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

1) 문준호, "기원 논쟁의 주요 문제", 창조론오픈포럼 8권 1호 (2014. 2.), 101-107.

2)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56.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부하는 영어 교재

ROD and STAFF Bible-based Curriculum

Rod and Staff Curriculum은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는 영어 실력과 기독교 세계관과 성품 형성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또한 Grade 1~4에서는 언어 기초 능력, Grade 5~10에서는 성경 이야기와 사상, 성품, 역사 및 과학적 사실 등을 다루며 학생들의 reading skill, comprehension skill, grammar, phonics, writing vocabulary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 ❖ Rod and Staff English Curriculum은 Grades 1~10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 Rod and Staff English Curriculum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영어 교재입니다.
- ❖ Rod and Staff English Curriculum은 해답과 배경지식을 설명한 Teacher's Manual이 있습니다.
- ❖ Rod and Staff English Curriculum으로 영어능력인증 및 수능, SAT 등의 입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Grade 1~10

READING	Reader / Reading workbook / Phonics workbook / Teacher's manual
GRAMMAR	Pupil textbook / Worksheet / Test / Teacher's manual
PENMANSHIP	Workbook / Teacher's manual
SPELLING	Workbook / Teacher's manual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 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독교교육 전문서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 / Tel. 02-529-7722 / 홈페이지 www.dctybooks.co.kr(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세미-1/컨퍼런스/다양한 교육정보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 첫 번째 이야기 |
시몬과 예수의 만남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디엔 예수 계십니까?

김건주 지음

MY PREFERRED JESUS
Fiction vs Nonfiction Jesus

헛된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편집할 것인가?
헛된 것을 비워내고 예수로 인해 온전해질 것인가?

CUP

신국변형 208면 | 양장본 | 정가 10,000원

꺾판 같은 예배,
거들먹거리는 교회가 난무하는 시대,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는 책!

| 첫 번째 이야기 |
시몬과 예수의 만남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디엔 예수 계십니까?

김건주 지음

MY PREFERRED JESUS
Fiction vs Nonfiction Jesus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11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6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560,000		기타급여	1,214,500
	일반회비	4,261,000		소계	4,614,500
	기관후원금	3,96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기타후원금	20,000		사무실관리비	377,000
	월보구독료	679,000		통신비	197,170
	CTC후원금	320,000		우편료	5,540
	사무실후원금	500,000		식비	458,300
	기타	0		복리후생비	958,010
				비품	90,000
		소모품비		99,150	
		회계용역비		220,000	
		교육비		10,000	
		회의비	89,700		
		기타	226,625		
		소계	3,281,495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63,000
				CTC후원금	328,350
				소계	391,35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000,000
				발송비	451,470
		소계	소계	2,451,470	
기타수입	기타수입	332,810	기타	세금	39,420
	소계	332,810		소계	39,42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홍보및기타	3,176,860
	학회행사수입	2,260,000		학회자료제작비	781,000
	학술지심사비	420,000		학회장소사용료	984,000
	자료집판매	40,000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수입	1,500,000		학회기타	100,000
	소계	4,320,000		소계	5,041,860
당월 수입액	15,552,810	당월 지출액	15,820,095		
전월 이월액	27,360,097	차월 이월액	27,092,812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11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0
				소계	1,600,000
	소계	2,1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122,000
				인쇄비	2,666,620
				소계	4,248,62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복리후생비	620,770
	도서판매비	1,239,600		통신비	250,000
	기타수입	201,890		회계용역비	110,000
				식비	20,300
				회의비	32,400
				소계	1,308,470
	소계	3,691,490	기타지출	세금	26,020
				기타	16,300
				소계	42,32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600,00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강사로	1,400,00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비품구입비	51,160
				미디어행사준비	80,340
				미디어기타	264,000
				소계	1,795,500
당월 수입액	6,391,490	당월 지출액	8,994,910		
전월 이월액	25,823,334	차월 이월액	23,219,914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가유휘, 권기웅, 김경현, 김고운, 김동찬, 김민지,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지만, 생명의강, 엄지은, 영은사, 유성욱, 이동렬, 이명준,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상자, 최원길, 최희정, 허태실, 한재승,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구재현, 권영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미정, 김병국, 김상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성식, 김정준, 김재우, 김태윤, 김항아, 김해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유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은, 이덕재, 이민희, 이수인, 이영홍, 이윤희,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선제, 임준택,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중국, 정봉현, 정한궁,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경휘, 김삿벌, 김수경 7천5백 김찬진, 고상성, 김영환, 김은민, 김호태, 민수진,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세호, 이은소, 이지는,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최경복 1만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효식, 고길현, 고선옥, 고연경,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희,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광순, 김규국, 김근배, 김기현, 김나경, 김남진, 김대용, 김동우, 김동준, 김따미, 김미혜, 김범식, 김보경, 김상범,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세원, 김세완,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숙, 김영만, 김명호, 김요한, 김용수, 김우신, 김원희, 김윤관,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영, 김정진, 김정호, 김중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철수, 김판임, 김 혁, 김형길, 김홍섭, 김홍재,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리영환, 류지호, 류현모, 미민호, 문재환, 박강국, 박경원, 박기연, 박능인,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상호, 박성인, 박시운, 박애란, 박종원, 박준모,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세원,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소, 소종화,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상자, 신지선, 신찬용, 신현수, 신현수, 신형근, 신희기, 신호영, 심인욱,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건, 양행모, 양해영, 연혜민, 오경옥, 오성호, 오지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연, 유희진, 윤매옥, 윤명섭, 윤상현, 윤천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계실, 이관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다은,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연, 이문일, 이상근, 이상우,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상엽, 이시영, 이언구, 이영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성, 이윤재,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진영, 이충원, 이학성, 이혜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경근,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은혜(양종태), 장인국,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상록,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환, 조이수, 조주영, 조한글, 조현영, 조해경, 조혜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진우, 최한빈, 최현식,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허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 현, 현승근, 현하나, 홍선호, 홍세기, 홍정식, 홍준호, 황기철, 황도은, 황세환, 황의서, 황인영, 황대연, 황해숙, 황해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숙, 유익신,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관, 김세광, 김영석,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경순, 노용환, 배성민, 변우진, 양예찬, 오하나, 우시정, 이건, 이명희, 이상기, 이연의, 이연아, 이재규, 조신관, 조창근, 한인관 2만5천 문석윤 3만 권경호,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윤정, 김지현,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송봉호,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임현식 8만 권정아 10만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송인규, 윤원철, 전광식, 최태연 21만 정영록 50만 김승욱

계 6,930,0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인성교회, 한가죽교회 10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연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계 3,960,000원

광고후원금

삼성전자, 엘타워, I&S법무법인, 흥성사, DCTV, 오후우스코리아

“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총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공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2014년 총회를 실시합니다. 2014년 한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2015년을 섬길 임원을 임명하여 신년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회원 및 임원 분들, 기독교단체 및 기관의 참석을 바랍니다.

- 대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 및 임원
- 일시 2015.1.19.(월) 오후6시~9시(저녁식사 제공)
1부. 식사 / 2부. 예배 및 회의 / 3부. 교제의 시간
- 문의 02-754-8004 (담당: 신호영 간사)
- ** 장소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기독교 대학원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 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추후 변동될 수 있사오니 사무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1.30(금)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에서 골다리지나 오른쪽 맞은편)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학회지] <신앙과 학문> 19권 세트 판매 실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은 연4회 발행합니다. 2014년 발행한 <신앙과 학문> 19권(1호~4호)을 세트로 판매합니다. 1세트에 60,000원(택배비포함, 권당 15,000원)이며, 이전 발행한 부수도 권별로 판매하오니 문의바랍니다.

- 문의 02-3272-4967 (담당: 김고운 간사)

[학회지] <신앙과 학문> 20권 1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이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권 1호 발행일 3월 31일
20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20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20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 (학회)

임원 소식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박상은 이사(샘병원 의료원장)님이 3년임기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생명존중의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1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01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 회원님! 새해 주님의 평안 가 득하시길 바랍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이사회 ● 정기총회 "정회원들을 위한"					
25	26	27	28	29	30	31
	● 월드뷰 2월호 발행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미 종강 및 시사회		● 대학원생 모임 "대학원생 누구나"

- 1/19(월) 오후 4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회 (엘타워 오페라홀)
- 1/19(월) 저녁 6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 1/29(목) 저녁 5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종강 및 시사회 (필름포럼,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
- 1/30(금) 저녁 5시 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C관 2층, 용산구 숙대입구역 근처)



월담 (越談)

독자분들의 투고를 받습니다. 매월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이슈는 **"뉴에이지 음악, 들어도 되나요?"**입니다.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시시오. (info@worldview.or.kr)

육감

큰 백화점에서 서성이던 중년 남자 하나가
아주 예쁜 젊은 부인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잠깐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부인이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다.

남자 왈
“우리 집 사람과 같이 백화점에 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예쁜 여자와 대화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 같이 나타나거든요.” ☺



밥 한번 먹자

시간이 좀 흐른 이야기입니다.

44년차 어느 한 대중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혹은 개그맨이 만든 익살스러움 넘치는 뮤직비디오라서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전유물인 쇼케이스를 환갑을 훌쩍 넘긴 가수가 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 반토막 되었을 젊은이들과 한데 어우러져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음악을 들어봅니다.

익살스런 비디오를 걷어내니 어느 집에서나 들던 말들이 들립니다.

혼자 사는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일단 아침부터 먹자.

점점 늙어가는 동생에게 말합니다. 속이 흰히 보이는 흰 머리칼과 늘어진 가슴, 출렁출렁 뱃살에도 여전히 넉 예뻐.

이미 옆에는 없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오랜 날들을 살고 나니 이제서야 이해한다고.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참 좋습니다.

가사 구절구절이 꼭 내 얘깁니다. 나의 오늘이고, 어제이고, 내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란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한 대중가수의 노래 속에 오늘이 있고,

연륜 넘치는 선율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가 젊은 청춘에게 말합니다.

니네 지금 외롭지?

매일 그저 들리는 대중가요 한 곡에서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만쯤의 위로를 지금,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요.

아니, 공감은 하고 있나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



HRC BUILDING

시작부터 다른 “울산 남목삼거리 소망메디컬센터”에서 시작하십시오!

뛰어난 입지인 울산 동구의 관문(남목3거리)과 교육환경(11개 학교 고4, 중3, 초4)에 둘러싸인 최고의 요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상권 형성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뛰어난 가시성과 전시효과를 볼수 있는 삼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소망메디컬센터
 의료계 중심 “소망메디컬센터”에서 선생님의 성공 개원을 축하합니다.

3,5,7층
분할가능

HRC BUILDING

*임대층별안내

층별	용도	권장업종	실면적
9F	제1,2종근린생활시설	옥상휴게공간·발전기실·기계실	
8F	제1종근린생활시설	근로자건강센터	513.35㎡
7F	제1종근린생활시설	분 의원	513.35㎡
6F	제1종근린생활시설	할 의원	513.35㎡
5F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 의원	513.35㎡
3F	제1종근린생활시설	능 의원	513.35㎡
2F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망OS	개원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약국	영업중
1F	제2종근린생활시설	금융업소	350.15㎡



*사업개요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138(서부동)
지역	준주거구역
층수	8층(엘리베이터 2대)
대지면적	1,449.00㎡
건축면적	522.27㎡
연면적	3,722.02㎡
주차대수	지상 자주식 주차장 27대 확보



성공비즈니스 - HRC BUILDING

임대문의 010-9101-7404 / 010-3151-8023